

공무 외 국외 자율연수 개요

1. 연수주제 : 히말라야의 자연환경, 네팔의 문화 탐방

2. 연 수 국 : 네팔

3. 연수일정 : 2013년 7월 24일~ 8월 15 일 (23일간)

4. 연수기관및 방문지

카트만두 : 파탄, 박타푸르 세계문화유산 구역, 보드나트 스투파

포카라 : 안나푸르나 보호구역

룸비니 : 붓다 탄생지

치트완 : 치트완 국립공원

빨빠 : Group for Environmental & Tourism Upgrading Palpa

5. 주요활동

안나푸르나 보호구역 트레킹, 카트만두 계곡 인근 유적지 방문, 룸비니 불교 유적지 방문, 치트완 국립공원 탐방

6. 연수의 효과

한국에 이주해 오는 수많은 네팔 사람들의 정서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히말라야의 자연 환경을 몸으로 느끼고 히말라야 고산 지역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깊게 이해하게 되었음

1. 트레킹 하기 전에

'히말라야 트레킹'이라 하면, 포터와 가이드를 동반,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 3천 미터가 넘는 등산로들이기에 고어텍스 의류나 신발, 보온 대책을 위한 배낭 등등..

사실 시작하기 전부터 미리 주눅이 들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간 시기는 한여름. 우기의 한복판이라 강우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시기입니다. 엄청난 진창이 예상되기도 하여 일찌감치 트레킹을 포기하고 일반적인 배낭여행처럼 नेपाल을 다녀볼까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포카라. 더워도 너무 덥네요. 주변에 어디 갈 데 있을까 도움말을 구하려고 들른 곳이 레이크사이드에 있는 산촌다람쥐. (포카라에서는 꽤 유명한 한인 업소이고 택시기사들도 대부분 압니다.)

산촌다람쥐 조병준사장님이 시크하게 한마디 하십니다.

"더우면 산에 가야죠?"

"지금 저희들 복장으로 갈 수 있을까요?"

냉감티셔츠에 냉장고 바지, 가벼운 물놀이 신발(칸투칸 아쿠아트레킹화)이나 경등산화 (트렉스타의 레저타임) 차림의 우리들. 경등산화는 방수가 좀 더 잘되긴 합니다만.

"등산 하기엔 알맞은 복장이네요. 저녁에 혹시 추울 수 있으니 긴 팔 셔츠 준비하시고요, 햇볕이 뜨거우니 긴 바지 입고 올라가세요. 참, 수시로 비가 오니까 우비 하나 사서 챙기시구요. 바람이 많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우산은 불편합니다."

"침낭 같은 거 필요 없나요?"

"지금 같은 계절엔 필요 없습니다. 혹시 모르니 바람막이 점퍼 정도 준비하시면 좋죠. 뭐, 요새 같으면 목욕도 많이 하지 않을 테니 옷은 간편하게 준비하세요."

"가이드나 포터 필요하지 않나요?"

"그냥 쪽 한길입니다. 짐 많지 않으면 포터 없이 그냥 올라가세요."

마치 동네 뒷 산 가듯 말씀하시는 조사장님. 그 덕분에 자신감을 좀 얻었다.

"GPS 같은 거 유용하지 않을까요?"

얼마 전 구입한 넥서스 7의 gps가 무척 성능이 좋길래, 혹시나 길 잃으면 어찌지 하고 물었다.

"... 전기 안들어 올 때도 많구요, 충전 할 때 마다 충전비를 받는데..."

그냥 넥서스 탭은 포기했습니다.

2. 트레킹 준비

■ 준비물

우리가 준비한 물품들	
옷	냉감 티셔츠 ★★★★★ (중간 중간 계곡물에 빨아 짊 짜서 입으면 정말 시원하다!) 냉장고 바지/ 생활한복 ★★★★★ 면바지 강력 비추! (오랜 시간을 걷고 오르내리막 많아 다리 움직임이 편해야 함. 면바지는 허벅지에 달라 붙음)
신발	* 아쿠아트레킹화(칸투칸 k780) ★★★ 가볍지만, 길에 척척한 곳 지날 때는 물이 들어와서 잘 안 마른다. * 경등산화 ★★★★★ 우기지만 등산로의 토질이 얇은 판 재질의 돌로 되어 있는 물 빠짐이 좋은 땅이라 등산로가 질척하지 않다. 그렇다고 물이 넘치지도 않는다. 약간방수되는 저렴한 경 등산화 (트렉스타 레저타임급) 정도면 아주 좋다. 아쿠아트레킹화로도 물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소형 배낭	* 35리터, 15리터 배낭. ★★★★★ 큰 배낭에 7~8KG 정도를 목표로 옷 가지를 넣고 보조 배낭에 물이랑 카메라, 지도를 담았다.
지도	* 포카라에서 산 1:155000 등산지도 ★★★ 푼힐 트레킹로 주변을 자세히 묘사한 1:55000 지도가 훨씬 좋을 것 같다.
비상용품	* 우비 ★★★★★ 포카라에서 500루피 정도면 가볍고 우수한 우비를 살수 있음 * LED 랜턴 ★★★★★ 일회용 밴드 ★★★★★ (가끔 밤에 정전이 되지만 1시간 가량의 푼힐 일출 감상 등산 말고는 밤 활동이 많지 않다.) * 카메라용 추가 배터리 필수. 충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주전부리	* 땅콩과자,트레킹용 쿠키 ★★★★★ 포카라 레이크사이드 거리 독일빵집의 트레킹용 땅콩쿠키 강추! * 물 (물통 꼭 필요) ★★★ 수시로 찾집을 겸한 숙소가 나오며 그곳에서 일반 식수(노멀 드링크 워터) 정도는 물통에 담을 수 있게 얻을 수 있다. 요오드로 정수된 물은 1리터 60루피.

■ 국립공원 입산 허가증, TIMS(Trekker Infomation Management System) 카드발급

안나푸르나 지역 국립공원 입산 허가증 발급 비용은 1인당 2천루피. 에베레스트 지역은 3천 루피입니다. 그 외에 등산객 정보관리시스템 카드를 발급받는데 이 비용이 1인당 20달러입니다.(인디비쥬얼 카드) 포터나 가이드 동반 시엔 카드발급 비용은 10달러입니다. 우리는 일정을 어떻게 잡을 지 몰라서, 또는 올라 가다가 포기하고 내려 올 수도 있다는 생각에 인디비쥬얼로 발급 받았습니다.

산촌다람쥬 조사장님이 4100루피에 발급 대행해 주십니다. (인디비쥬얼 발급. 만일 포터를 동반하는 발급 시에는 3200루피)

"카드를 어떻게 발급하실래요?"

"저희들끼리 가는 길로 받겠습니다. 일정이 확실치 않아서요.."

"헌데... 인디비주얼로 할 때와 포터 동반으로 할 때 발급 비용이 두분이 합쳐 1800루피 차이 납니다. 포터 일당이 하루에 900루피니까 이틀치 포터 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포터비가 그렇게나 싸다니. 게다가 포터와 함께 있으면 초행길에 길 잃을 염려도 없으니 어찌할까 고민도 했지만 과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저희들끼리 가 보겠습니다. 길을 잃을 염려는 없나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고 한 길밖에 없으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대책 없는 자신감. 하지만 결과적으로 적절한 판단이었고, 여행을 좀 더 느긋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트레킹 중 비용

- 1) 트레킹 길 가의 숙소들 숙박비는 평균 1인당 100루피.
- 2) 한 끼 식사는 1인당 300~400루피, 짜아(밀크티) 한잔은 50~60루피
하루 3식, 짜아 두잔, 숙박 하면 1100~1300루피 듭니다.
- 3) 뜨거운 물 샤워 100루피.

■ 고산증 해결하기

고산증은 체질에 따른 것으로 몸의 건강도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저는 고산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3400m에서 눈앞이 캄캄해 지는 증세가 나오더군요.

- 1) 2천 미터를 넘어가면서 트레킹은 하루 5~6시간만 하기.
- 2) 3천 이상에서는 조금씩 자주 쉬며 적응하기. 특히 어지럼증이나 강한 감기증세가 보이면 무조건 쉬기.
- 3) 저고도부터 천천히 올라가면 고산증은 크게 걱정할 것이 못됩니다.

■ 안나푸르나 지역 가는 방법

◆ 카트만두 → 포카라 : 버스 (6~8시간)

- 1) 일반 터미널의 로컬버스,
- 2) 어느 숙소에서나 예약 가능한 투어리스트 버스 (Non A/C) 450루피
- 3) 그린라인, 바바투어 등등 에어컨버스 (800~18달러)

◆ 포카라 여행자거리 (레이크사이드) → 트레킹시작점 나야폴 : 택시 또는 버스

- 1) 여행자거리에서 곧바로 타는 택시는 1500루피. (1시간),
- 2) 바글롱 버스터미널(여행자 거리에서 택시로 150루피정도)버스는 100루피(2.5시간)

3. 폰힐 트레킹 루트/일정

■ 폰힐 트레킹 개요

안나푸르나 자연보호지역의 남서쪽 봉우리인 폰힐(PoonHill, 3193m)은 다울라기리(Dhaulagiri-흰산, 8172m), 닐기리(Nilgiri-푸른 산, 6940m) 안나푸르나(Annapurna-수확의여신, 7219m), 마차푸차레(Machhaphuchhare-피시테일, 6993m) 등 안나푸르나 보호구역의 멋진 고봉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있는 훌륭한 전망대입니다. 폰힐 꼭대기는 너른 평지로 되어 있고 전망대가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일출을 보러 새벽에 등산을 한답니다. 그런데 전망대라 불리는 이곳조차 3200m나 되니 우리 나라의 산 개념하고는 엄청나게 다르지요. 우리나라에는 있지도 않은 3천 미터가 넘는 산이 언덕(Hill)이라니요.

우리 나라 분들은 폰힐 트레킹 루트보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루트를 많이 올라가시더군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4100m, ABC라고 하더군요) 까지 올라 가는 데 나흘, 내려 오는 데 3일 하여 7박 8일 코스입니다.

폰힐 트레킹 루트는 보통 3박 4일로 잡습니다. 폰힐 바로 앞인 고레파니 마을까지 올라가는 데 이틀, 능선을 따라 안나푸르나를 감상하며 타다파니 마을까지 하루, 나머지는 하산하는 일정입니다.



저희는 첫날 조금 늦게 출발했고, 안나푸르나 캠프 루트를 살짝 경험해 보기 위해 하루를 더 넣어 4박 5일로 진행했습니다.

- 1일 : 나야폴 (트레킹 시작 마을.1070m,) - 비레탄띠 (국립공원 퍼밋 사무소와 팀스카드체크.1025m) - 힐레(1430m) - 티케둥가(1480m) - 울레리 (1960m)
- 2일 : 울레리 - 반탄티 (2210m)- 낭게탄티 (2430m) - 고레파니 (2860m)
- 3일 : 폰힐(새벽, 3200m) - 데우랄리 (3150m) - 반 탄티(3180m) - 타다파니 (2630m)
- 4일 : 타다파니 - 추일레(2200m) - 따울롱(2180m) - 촘롱 (2170m) - 시누와 (2360m)
- 5일 : 시누와 - 촘롱 - 지누 (1780m) - 큐미 - 시위 - 키토 (이곳에서 깊으로 비레탄띠 지나 포카라 이동)

■ 트레킹 1일차

나야풀 - 비레탄띠 - 힐레(1430m) - 티케둥가(1480m) - 올레리 (1960m)

포카라에서 택시를 타고 한시간 넘어 꾸불꾸불 산길을 달려 도착한 나아풀 마을. 버스와 택시가 많이 서 있고, 트레킹 시작점은 마을 쪽입니다. 대중적인 트레킹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마을은 꽤 북적이는 가촌입니다.

마을을 가로질러 30여분을 걸으면 국립공원 퍼밋 사무소가 있는 비레탄띠에 도착합니다. 먼저 TIMS 체크포인트에서 확인을 받고 다리를 건너 퍼밋 사무소로 가서 허가증을 보이고 확인을 받는 것으로 트레킹 시작.



여기서 왼쪽으로 가면 고레파니 방향(푼힐 트레킹) 오른 쪽으로 가면 간드룩 방향(ABC트레킹)입니다. 고레파니 방향으로 잡고 출발합니다. 비레탄띠 마을은 작은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네요.

마을 길이 끝나고 계곡 쪽으로 너른 임도가 나옵니다. 원래는 지프가 다니던 길이지

만 산사태로 길이 유실되어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땀별이 강해서 걷기에 힘들군요. 길이 유실된 부분은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고 바로 옆으로는 절벽입니다. 토질이 자갈 종류고 나무들이 많지 않아 매년 도로가 유실된다고 합니다.



비레탄띠에서 힐레 구간이 별 것 없는데도 가장 힘들었습니다. 시간은 두시간 반쯤 걸렸는데 별이 강하고 오랜만의 등산이라 그랬나 봐요. 힐레에 도착하면서부터 구름이 많아지고 비가 조금씩 뿌리길래 우비를 썼습니다. 힐레는 작고 예쁜 마을입니다. 좁은 길가에 집 몇 채와 식당이 있네요. 다른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군요. 늦게 출발한 저희는 잠시 쉬다가 바로 출발했습니다.

힐레부터 티케둥가 가는 한 시간의 트랙은 드디어 숲길입니다. 비가 뿌려서 시원하게 걷습니다. 힘도 덜 들고 몸도 좋아지네요. 티케둥가에 도착한 게 4시 반. 다른 팀들은 이곳에서 1박을 하지만 저희는 왼쪽에 보이는 높은 언덕 위 울레리 마을까지 가 보기로 합니다.

티케둥가에서 울레리는 해발고도로 500m 차이가 납니다. 3400여개의 계단길로만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올라오는 길에서 다른 분의 가이드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티케둥가에서 4시간 이상 남지 않으면 올라가지 마세요”

조금 짐을 먹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역민에게 물어 보니 두 시간 정도 걸릴 거라는 말을 해 줘서 그냥 올라갔습니다. 계단 길에서는 당나귀가 짐을 싣고 내려오는 모습이 종종 보입니다.



조금 올라가다 쉬고, 충분히 힘 안들이도록 올라갔는데도 두 시간 반 걸려 6시 50분 쯤 올레리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아직은 어두워지기 직전입니다.

팬썰아 보이는 안나푸르나 뷰 로지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은 더블룸이 절반 할인해 100루피입니다. 밥은 보통 250~350루피에 말이죠. 트레킹 루트 중의 숙소는 방 장사가 아니라 밥장사란 게 실감 납니다. 방은 아늑하고 뜨거운 물 샤워가 무료이군요! 트레킹 숙소 방이 지저분하고 음식 맛이 최악이라는 평을 많이 봤는데 생각보다 방도 깨끗하고 नेपाल 음식 달맛도 맛있습니다.

도착하고 얼마 있지 않아 장대비가 옵니다. 숙소 방에선 지금까지 걸어 온 계곡 길이 멀리 보입니다.

■ 트레킹 2일차

올레리 - 반탄티(2210m) - 낭게탄티 (2430m) - 고레파니 (2860m)

새벽에 활짝 개어 안나푸르나 남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힘들었어도 올레리까지 올라 와서 쉬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잠깐 마을을 돌고 나서 식당 바

깔의 식탁에서 안나푸르나를 바라 보며 아침 식사를 해 보니, 가히 세계 최고 전망의 레스토랑이라 하겠군요.



오늘은 해발 고도로 900여m를 올라 가야 합니다. 8시 쯤 출발해 마을 지나 산길을 1시간 정도 올라 가니 반탄티 마을입니다. 마을이랄 건 없고 숙소 몇 개 있는 게 전부입니다. 우리나라 산악회의 깃발을 걸어 놓은 것도 많이 보입니다.

잠깐 쉬면서 스트레칭 체조 하다 길을 떠납니다. 올라 가는 길 내내 계곡 물 소리가 시원합니다. 폭포도 많고 쉬어 갈 개울도 많아서 군데 군데 쉬면서 세수도 하고 토시에 물도 적시면서 흥겹게 올라갑니다.

반탄티-냥게탄티 구간은 본격적인 숲길이라 시원하고 걸을 만 합니다. 축축한 숲은 원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듯 이끼가 두껍습니다. 랄리구라스 고목들에 늘어뜨려진 덩굴이 신비로운 느낌을 줍니다



군데 군데 SAVE DRINKING WATER STATION 이라는 팻말이 보입니다. 먹을 수 있는 샘을 발견하고 그곳에 숙소를 지은 것이겠지요. 누가 발견했는지, 누가 관리에 도움 주는지 기록도 해 놓았네요. 비수기라서 그런지 찾집이 운영하지 않는 곳도 간간히 보입니다. 쉼터로 제격이죠. 그 외 군데 군데 돌로 쌓은 쉼터가 있어 가방을 쉬게 합니다. 이 쉼터는 트레커들과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쓰인다고 하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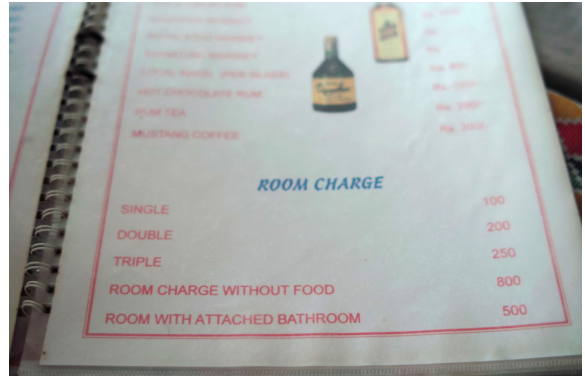


냥게탄티는 건물들이 제법 있는 마을입니다. 너른 회관 같은 건물도 있습니다. 찾집에 들러 짜아(밀크티) 두 잔으로 피로를 풁니다. 충분히 쉬고 마지막 오르막을 오르는데 눈 앞에 약간씩 캄캄해지면서 어질어질 합니다. 티벳 라싸 공항에서 느꼈던 고산증 증세가 순간 나옵니다. 현재 해발고도가 2700m정도 되는 지점이고, 1980미터에서 2700미터까지 4시간에 걸쳐 빠르게 오르다 보니 그랬나 봅니다. 잠깐 숨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며 계속 올랐습니다.

출발한지 5시간 반 지나 1시 반에 목적지인 고레파니(2860m)에 도착했습니다. 너무 일찍 도착했지만 더 갈 곳이 없네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왁자하게 게임을 하는 카말라 로지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값은 역시 100루피. 너르고 양쪽 창문 있는 밝은 방입니다. 여름이라 춥지 않아서 이런 방이 더 좋습니다. 겨울이라면 아마도 창문 없는 방이 더 좋겠지만요. 그래도 2900미터인 고산이라 창문 틈을 토시와 손수건으로 단단히 단속합니다. 밤에는 꽤 추워서 단속하기 천만 다행이었죠. 숙소에서 준 이불을 꼭꼭 덮고 잤습니다. 이곳은 며칠 째 정전이라 카메라 배터리 충전이 안 되어 걱정입니다.

생각보다 식사가 맛있는 집이어서 놀랐습니다. 3천미터에서 만드는 음식이 오죽할까 했지만 이곳 고레파니는 지도에도 버젓이 소도시로 등장할 정도로 요지라서 꽤 물자가 풍부합니다. 구멍가게도 있고, 빵집이나 서점도 있으니깐요. 이 숙소의 볶음밥이나 달걀

은 수준급입니다. 심지어 피자는 지금까지 먹어 본 것중 최고입니다! 전기가 안들어 와
촛불 켜고 식사하는 운치도 즐기면서 잘 쉬었습니다. 고산증은 이제 한 풀 꺾었나 봅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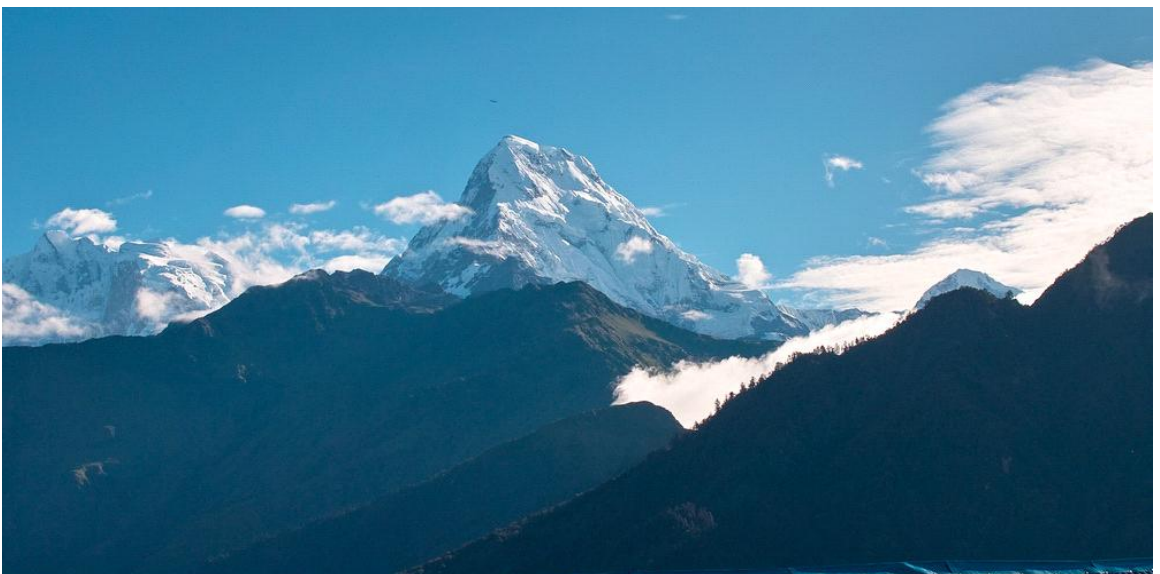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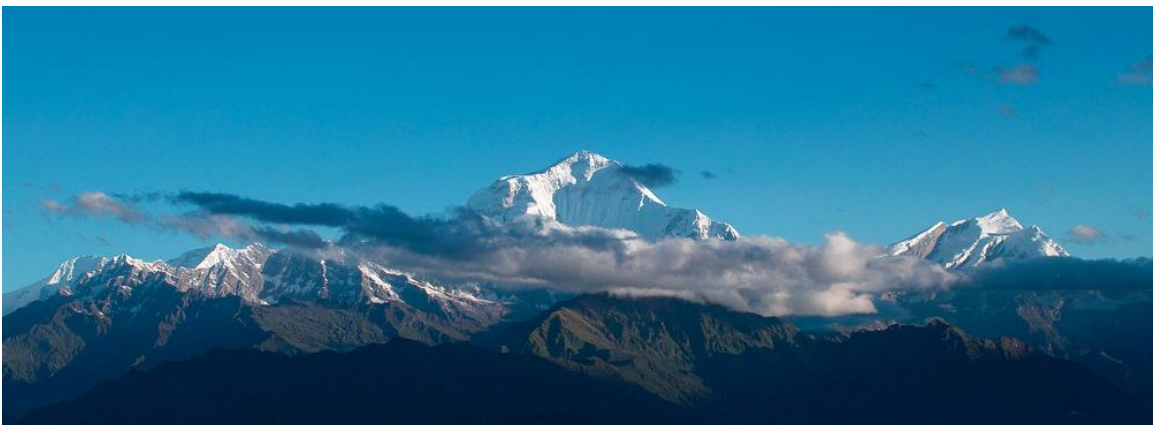
■ 트레킹 3일차

푼힐(새벽, 3200m) - 데우랄리 (3150m) - 반 탄티(3180m) - 타다파니 (2630m)

어제 오후부터 계속 비가 내렸지만 새벽 3시쯤 되자 활짝 개어 달빛이 환합니다. 달
빛에 비추어진 다올라기리와 안나푸르나가 얼마나 멋진지요! 빛에 약한 카메라를 가져
갔기에 사진으로 남기지 못해 정말 아쉽네요.

새벽 4시 반 경, 푼힐에 올랐습니다. 진입로가 다른 게스트하우스 옆이라서 살짝 헛
갈렸지만 그 외는 동네 뒷산 가는 것처럼 길도 잘 되어 있어서 꼬마 랜턴 하나로 등산이
충분했습니다. 2900m에서 3200m까지 올라가므로 꽤 높지요. 올라가는 데만 꼬박 한
시간 10분쯤 걸립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출발했지만 속속 다국적 트레커들에 따라잡힙
니다. 젊은 친구들이라 빠르군요.

푼힐에 오르고 나니 막 해가 뜨려고 합니다. 일출이라 해서 별 다른 게 있는 건 아니
고 안나푸르나와 다올라기리 등의 거대한 봉우리가 태양빛을 받는 신성한 의식 같은 느
낌이 좋아서 모두들 오르나 봅니다. 우기였지만 이렇게 맑게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너
무나 고맙습니다.



숙소에서 아침을 먹고 8시 40분에 타다파니로 출발했습니다. 산의 북사면을 계속 올라 가다 칼리구라스 군락이 있는 너른 평지에서 잠깐 쉬다 보니 등에가 자꾸만 쏙니다. 풀 가지로 털며 산 등성에 올라 오른 쪽에 보이는 푼힐 전망대를 뒤로 하고 왼쪽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멀리 보이는 푼힐 높이로 보아 이 쯤 되면 3100미터 쯤 될 것 같습니다. 능선 길은 끝을 알수 없는 계곡으로 이어지는 초지길로 바뀝니다. 무시무시합니다. 바이칼 400m절벽에서도 무서워 혼났는데 이 절벽은 못해도 1천미터는 되겠군요.



조금 걷다 산길로 접어들입니다. 꾸준한 오르막입니다. 3100M에서 계속 길을 재촉하다보니 고산병 증세가 조금씩 옵니다. 마치 감기 같은 증상이고 가다 쉬다를 반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숲길에서는 조금 쉴라 치면 거머리들이 자벌레처럼 몸을 움츠렸다 펴며 신발을 기어 오릅니다. 덕분에 제대로 쉬지도 못해 고산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너무 더워 티셔츠를 적셔 머리에 얹고 걷다 산의 북사면을 한참을 내려 가 작은 집 몇 채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Deorali 라고 합니다. 한참을 내려 왔는데도 3150m입니다. 고산증 때문에 짜아를 마시며 한참을 쉽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 목적지 타다파니까지 세시간이랍니다. 지금까지 세 시간을 왔는데 또 세시간을 더 가야 합니다. 산길의 내리막 경사가 급해지고 계곡 물소리가 들립니다. 계속 내려가다 칼리구라스 호텔이라는 곳에 도착해 잠깐 쿠키 먹으며 쉬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폭포의 가장자리로 내려가는 직하강 트랙. 계단 처럼 되어 있는 끝없는 내리

막입니다. 폭포를 다 내려오고 나서도 계속 내려갑니다. 고도 500m이상은 내려가나 봅니다. 중간에 비가 와 우비를 챙기고 걸으니 건물 몇 채가 보입니다. 이고이 반 탄티. 식당은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마을을 지나 거대한 칼리구라스 숲에 다달았고 원숭이들이 짹짹거립니다. 털이 희고 얼굴이 검은 랑구르였습니다. 인도에서 흔히 보던 인간 사회에 찌든 난폭한 원숭이가 아니라 야생의 원숭이는 처음 봅니다.

숲을 나오자 끝 모를 거대한 계곡을 낀 절벽길입니다. 힘들기도 하고 카메라 배터리 충전도 해야 하여 절벽 끝에 있는 생추어리 로지에서 식사를 하고 조각 잠을 청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했습니다. 한시간 반 정도 쉬니 몸이 거의 회복됩니다.

로지에서 출발해 다시 줄곧 내리막이 계속되었고 계곡의 끝 까지 내려갔다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다시 오르막이 시작됩니다. 아마도 계곡 절벽의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인가 봅니다. 가는 길 내내 계속 거머리가 씹 없이 다리를 탐하여 못칩니다. 오르막이 끝나가니 드디어 목적지인 타다파니입니다. 도착한 시각은 5시. 충분히 쉬고 샤워도 하고 쉬면서 발등을 보니 일회용 밴드를 붙인 틈 새로 거머리가 피를 포식하시고 땀땀해져 있습니다. 징그럽네요. 달랑 잡아서 화단에 방생(^^)했습니다. 숙소가 따뜻하고 이불도 포근합니다.



공식적으로는 5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9시 경 출발한 우리가 도착한 시각은 5시니까 8시간 동안 산행을 한 거네요. 거머리 때문에도 더이상 산행이 힘들다고 판단한 우리는 내일 아침 밝는 대로 하산하기로 맘 먹었습니다.

■ 트레킹 4일차

타다파니 - 츠일레(2200m) - 따울룽(2180m) - 촌룽 (2170m) - 시누와 (2360m)

새벽에 안나푸르나와 마차푸차레의 장관이 펼쳐졌습니다. 푼힐 전망대보다 더욱 가까이서 안나푸르나를 봅니다. 흰 눈에 덮인 봉우리는 산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감동을 주네요. 우기답지 않게 청명한 날씨가 우리를 축복해 줍니다. 지금까지 중 가장 청명한 아침이라 안나푸르나가 구름 하나 없이 조망됩니다. 마차푸차레 쪽으로 태양이 뜨는 바람에 역광 사진만 찍히는 건 조금 아쉽지만.

어제 하산하고자 했던 생각이 쑥 들어가고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 촌룽 쪽으로 올라가 보기로 맘을 바꿨습니다. 백두 봉우리가 자꾸만 부릅니다.



춤룡가는 길 초입은 어제 내린 비 때문에선지 진창이 심합니다. 잠깐만 제자리에 서

있기만 해도 거머리가 바로 신발 타고 올라옵니다. 한 시간 가량 급한 경사로를 계속 내려옵니다. 마차푸차레를 앞에 보며 걷는 트레킹 길. 웬걸 해가 높았는데도 구름이 오지 않습니다. 장점이라면 절경이고, 단점이라면 강렬한 태양입니다. 아름답군요.



산을 쪽 내려 오면서 수백 미터 아래 강을 봅니다. 저 강을 건너야 촌롱 가는 길일 겁니다. 저까지 내려 갔다 다시 올라 가야 한다니. 사실, 길을 잃어서 잘못 갔습니다. 강을 내려 가기 전에 다리가 있어서 건너고 하이랜드의 농지를 감상하며 한시간 가량 걸었는데 마을 에서 만난 주민이 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 돌아서 가느라 9시 출발에 한 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를 세시간 반 걸렸습니다.



왼쪽 사면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 사면으로 한시간 이상 걸었다가 돌아옴

오르막의 끝에서 30분 정도 내려가니 촌룽입니다. 촌룽은 거대한 언덕 꼭대기에서 계곡까지 이어진 길가에 형성된 마을입니다.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커들이 거의 이곳에서 자고 가기에 꽤 큰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진의 저 끝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촌룽에 왔지만 아직 시간이 좀 있어 다음 마을인 시누와까지 가 보기로 합니다. 저 언덕을 다 내려가고 건너편 언덕을 그만큼 다시 올라가야 하지요. 얼핏 보기에 가까워 보여 시도를 했습니다만 무려 두시간이나 걸려 건너편 언덕 1/3 지점 밖에 못 갔습니다. 게다가 장대비도 쏟아져 찻집에서 쉬며 기다립니다. 숙소로 할 시누와는 바로 잡힐 듯 보입니다.

“저까지 30분이면 될 거야. 올라가자.”

그러나 끝없이 이어진 오르막 길입니다. 아무리 아무리 걸어도 끝이 안 납니다. 비는 장대같이 쏟아집니다. 결국 한시간 넘어 걸렸고 어둑할 즈음인 7시 넘어서야 숙소에도 착했습니다. 시누와의 숙소는 딸랑 세 군데. 그 중 두 군데는 영업을 멈췄습니다. 비수기라. 하나 있는 숙소는 허름하기 그지 없습니다만, 하는 수 없죠.

“200루피 주세요.”

다른 곳 다 100루피였는데 200이랍니다. 다른 숙소에 가 봐도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 해보 노 초이스. 후후” 웃으면서 화답해 주고 짐을 풀었습니다. 비는 계속 억수 같이 옵니다. 그나마 식사가 맛있어서 절반은 성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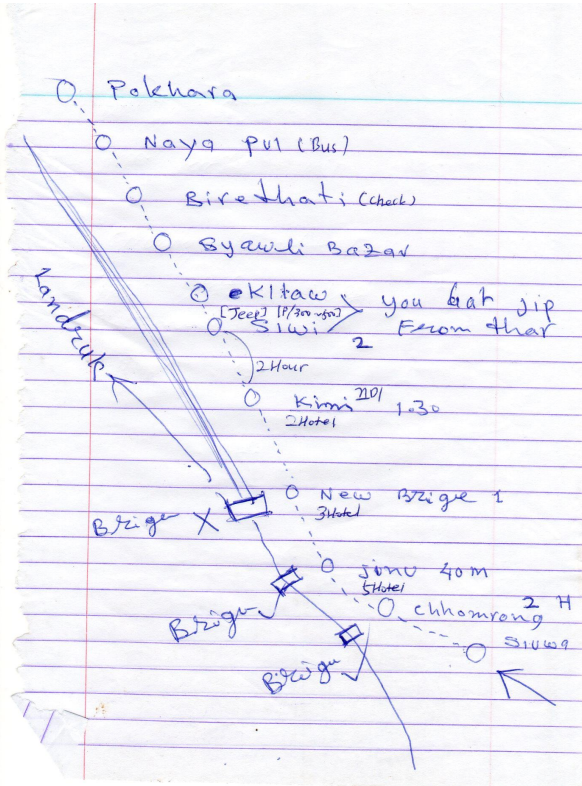
■ 트레킹 5일차

시누와 - 촛롱 - 지누 (1780m) - 큐미 - 시위 - 키토 (이곳에서 짚을 타고 비레탄띠 지나 포카라로 이동)

밤 새 비와 천둥치며 왔는데, 아침이면 활짝 개던 날씨가 꺾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누와는 마차푸차레를 바로 아래서 보는 전망지점이라 기대기대하고 왔는데 짙은 비구름에 가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4일 연속 청명한 새벽을 바라는 건 아무래도 무리였던 걸까요? 시누와가 2300m밖에(^^) 안되는 낮은 곳이라 비구름에 덜컥 갇혀 버린 걸까요?

“여기서 포기하자. 지금까지 온 것도 대단한데 뭐.”

주인 아저씨께 하산길을 물어봤습니다. 엄청나게 친절하십니다. 직접 지도를 그려 가며 설명해 주십니다.



시누와에서 촌롱까지 두시간, 촌롱에서 지누까지 40분, 지누에서 뉴브리지까지 1시간. 꼬미까지 두시간, 시위 지나 키토까지 두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시위나 키토부터는 짚이 포카라까지 다닐거라고 합니다.

아저씨 예상으로도 짚 스테이션까지 7시간 40분이 걸리는 길입니다. 초보인 우리는 얼마나 걸릴까요?

아침 먹고 8시에 촌롱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한 시간 쯤 걸려 촌롱으로 연결되는 다리에 도착했습니다. 세상에 내리막만 오는 데도 한 시간이나 걸리는 엄청난 언덕이었네요... 촌롱은 계곡부터 꼭대기까지 끝없는 계단입니다.

이번에 계단을 세어 보며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걸까요?

아침 등교하는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시누와에서 촌롱까지 등교하려면 엄청날 텐데요. 하필 학교는 촌롱의 꼭대기에 있으니 V자 계곡을 끝까지 내려갔다 올라가야 하는 거죠. 현지 아이들이라 거뜬하게 올라가나 싶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촌롱 바닥부터 꼭대기까지 거의 우리와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꼭대기 부근에서 쉬고 있는데 바로 옆 호텔 권장이 그림니다.

“포카라 가요? 이 옆길로 가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왔던 길 말고 더 쉬운 길이 있는 것이구나!

다행히 그분 말씀대로 산 중턱을 빙 돌아 내려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올 때와는 전혀 다른 길입니다. 물론 하산길은 어제 왔던 길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름길을 택한 것이니까요.



호텔 옆 갈림길에서 시누와를 찍어 보았습니다. 사진 가운데 사면에 점처럼 보이는 곳이 어제 묵은 곳입니다. 가까워 보이는데 시간은 두시간 반 이상...

츨롱 시작되는 계곡에서 계단을 세던 일은 이곳 호텔에서 멈춥니다. 이 까지만 해도 계단은 2380개. 계단으로 느껴지는 돌덩이를 모두 포함했고 걷는 길은 제웁니다. 아직 츨롱 꼭대기까지는 2~3백 개의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죠.

츨롱에서 사면 따라 내리막으로 한시간 걸려 지누란 곳에 도착했습니다. 온천이 있다는 곳인데 호텔들이 꽤 예뻐니다. 이곳에서 묵어도 좋을 듯 한데요. 1700미터 정도 높이입니다.

온천 가 보려고 길 물어 내려가는데 한 없이 내려가기만 합니다. 아마 계곡 끝까지 내려갈 기세입니다. 결국 30여분을 내려가다 포기하고 다시 올라옵니다. ‘신 포도 효과’의 한 마디를 걸치면서.

“아마 온천 웅덩이에는 거머리가 그득할 거야.”

온천 갔다 오는 내리막 오르막 한 시간 동안 길가에 거머리가 창궐했습니다. 그 와중에 각각 두 방씩 피를 쪽쪽 빨리웠네요.

지누에서 밥 먹고 쉬다 뉴브리지로 길을 잡습니다.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는 데 20분 걸립니다.



계곡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폭포를 찍습니다. 우리 나라 가으면 하나만 있어도 명승지가 될 절경이지만 여기서는 계곡 지나는 다리마다 이런 모습입니다. 힘든 몸에 기를 팍팍 넣어 주는 경치입니다.

뉴브리지 마을에서 차를 마시며 쉬는데, 권장 아저씨가 시위 길이 유실되어 키토까지 내려가야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네 시간 반이나 더 가야 키토입니다. 뉴브리지는 1360 지점. 여기서 계속 완만하게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 오는 트렉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게 느껴집니다. 두 시간 걸려 큐미부터는 완연하게 마을 분위기입니다. 날이 더우니 비라도 내렸으면 싶은데 비가 내려 주지 않는군요. 큐미부터 시위까지는 조금 더 덥습니다. 한 시간 반 걸려 시위까지 오니 쉴 스테이션을 했음직한 너른 공터 앞가에서 두분이 한 잔 하시는 중. 물어 보니 역시나 30분 더 가야 있는 키토부터 길이라고 합니다.

키토까지는 길이 다니던 돌 포장길. 발이 엄청나게 아파옵니다. 아마도 거의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에 그런 거겠지요? 6시 경 쉴 스테이션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10시간

이나 산행을 했네요.

짚 요금은 네팔리가 300, 외국인이 600정도지만, 승객이 없습니다. 거의 9인승 짚을 우리 둘만 타고 가려니 처음엔 4천을 부르십니다. 타는 사람 아무도 없어서 흥정을 해 봤습니다.

“투 따우전”

“투 따우전 파이프 핸드렛”

“옛 모스트 위 캔 페이 투 따우전”

대화를 가만히 듣던 다른 청년, 우리에게 손짓합니다.

“오케이 투 따우전”



짚 드라이버를 불러 와 그 친구와 드라이버, 우리까지 네 명이 짚을 타고 내려갑니다. 아마 포카라 갈 일이 있나 봅니다.

한 시간 동안 엄청난 오프로드를 달립니다. 걸어서도 한 시간 반이면 내려오는 길인데 짚으로 한 시간입니다. 인도 타타 4WD, 엄청나네요. 저도 무쏘가 있지만 명함도 못 내밀 진창, 깊은 개울, 바위길 등을 거침없이 갑니다.

한 시간 지나 입산할 때 퍼미를 받았던 비레판띠 도착. 내려서 허가서에 하산 증명을 받고 팀스카드 부스에서 다시 하산 증명을 받았습니다. 짙 드라이버가 우리 더러 내려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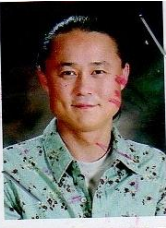
짙은 나야폴 마을에서 짐을 좀 싣고 포카라로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싼 값에 가는 게 미안하여 다른 사람을 더 태우래도 안태우고 그냥 갑니다. 포카라까지 가는 구절양장길을 커브마다 속도 줄여 가며 안전하게 뽁니다. 며칠 전 택시로 올 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뽁던지 오토바이 뽁려 다녀볼 거라는 생각이 쑥 들어갈 정도였는데, 이 드라이버는 모범운전사네요.

포카라 도착하니 8시 20분입니다. 조금 멀리 있어서 택시 타고 들어 와야 하는 바글룽 버스터미널에 내려 줄 줄 알았더니 고맙게도 숙소까지 가자고 합니다. 숙소 앞서 내려 몇 번이나 고맙단 말씀 드리고 헤어졌습니다.

산존다람쥐에 가서 짐을 찾고 고맙단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용기를 주신 덕분에 잊지 못할 경험을 하고 가는 거니까요. 사장님이 주선해 주신 숙소는 세레니티 호텔. 시설 좋은 엄청 번듯한 호텔인데 숙박비는 고작 500루피. 6000원입니다.



NATIONAL TRUST FOR NATURE CONSERVATION
Entry Permit
 (ACA/MCA/GCA)
 Schedule - 2 (Relating to Sub-Rule [I] of Rule 19)
 Receipt No. **0410397**
 Entry Permit No. **PFA / 89196**
 Full Name: **JEYEOL RHYU**
 Date of Birth: **1970/01/21**
 Passport No. **1111111**
 Nationality: **KOREAN**
 Purpose of Visit: **Trekking**



NATIONAL TRUST FOR NATURE CONSERVATION
ANNAPURNA CONSERVATION AREA
 Kathmandu, Nepal
ENTRY PERMIT RECEIPT
 Birethanti
 Ticket No. **04103**
 Date: **12/27/2013**
 Serial No. **PFA / 89196**
 Received with thanks from Mr./Mrs./Ms. **JEYEOL RHYU**
 Amount (Rs.) **2000**
 Agency Name: **ESSENCE TREKS**
 Authorized Signatory: **JAGADISH**

Entry Permit Issuing Authority
 Signature: *[Signature]*
 Full Name: **JAGADISH HAMAL**
 Designation: **Trekking**

Passport Number: **2737013**
 Nationality: **KOREA**
 Date: **12/27/2013**
 Signature: *[Signature]*



TRAVELLER'S DETAILS

Name: **Kyounga**
 Surname: **POOLE**
 Nationality: **KOREA**
 Date of Birth: **10.12.68**

Trekking Area: **Annapurna**
 Entry Date: **28.8.13** Exit Date: **5.8.13**
 Route of Trekking: **Nayapul - ABC - Nayapul**

Contact No. (In case of Emergency):
 1. (Agency)
 2. 01-44 43 003 (TAAN Kathmandu)
 3. 01-42 25 709 (Crisis Hotline NTB)
 4. 01-42 56 909 (NTB)
 5. 061-46 30 33 (TAAN Pokhara)

Name & Company Stamp: *[Stamp]* Issue Date: **28.8.13** Authorized Signature: *[Signature]*

TIMS Regulatory Provision
 VAT No. 500052569 NTB (F)
 Card cost US\$ 20.00 including VAT

- Please keep this card with you during the trekking period.
- Please present this card to NTB/TAAN Officials, National Parks, Conservation Areas and Police Check Posts on request.
- Please keep a copy of passport along with you during your trek for verification.
- This card is non-transferable, non-endorsable and valid only for prescribed area and duration.

Blue Colour: Group Trekker/s (GT)
 Trekker/s using local facilities/expertise such as Trekking Guide/Support Staff and all the pre-booked facilities.

Green Colour: Free Individual Trekker (FIT)
 Trekker carrying own luggage and bearing all the 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individually.

Thank you for - 187101

- Respecting local people
- Respecting local culture and traditions
- Respecting nature and environment
- Using local products and facilities

(This card is valid for single entry only)
 For reliable services, please make reservation through government registered trekking agencies.

